

운리-덕산 구간

■ 코스 지도

풍부한 생태계와 삶이 남명 조식 선생님과 만나는 길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 소개	운리-덕산 구간 소개	
2	운리 당산목	당산목과 영남대로	민속자료
3	참나무 군락	숲의 천이	마을
4	멧돼지 벼개목	멧돼지와 숲	민속자료
5	오솔길 입구	오솔길의 유래와 특징	민속자료
6	백운동계곡	백운동계곡 이야기	역사
7	마근담	마근담의 유래	여행
8	사리	마을 이야기	여행
9	산천재, 구장터	남명과 후손들의 삶	생태
10	옛 파출소	치열한 전적지	민속자료/ 생태
11	덕산장	장의 변화	역사

1. 구간 소개

<한국사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교양과목 교수님은 중간과제의 주제를 칠판 가득 크게 쓰셨다. '남명 조식의 사상. 10포인트, 줄 간격 160, A4용지 10장 내외'. 강의실 곳곳에서 들리는 한숨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수님께선 말을 이으신다.

“지리산 둘레길에 한 번 가보세요. 남명 조식 선생이 말년을 보내셨던 곳이 산청의 덕산(밭음)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가면 선생의 묘소와 기념관, 그리고 선생이 손수 짓고 살았던 산천재라는 집이 있죠. 그리고 그 근처에 선생의 제자들이 학문을 연구했던 덕천서원도 있고요. 남명 선생이 평생 동안 지리산을 12번이나 올랐다는 건 수업시간에 이야기했죠? 덕산에서 조금 올라가면 선생이 즐겨 갔던 백운계곡도 있으니, 머리로 식힐 겸 다녀들 오면 좋겠네요. 이 모든걸 한꺼번에 느끼려면 지리산 둘레길의 윤리-덕산 구간을 걸으세요. 얼마 전에 저도 다녀왔는데, 참나무 숲길과 백운동 계곡이 참 좋더라고요. 굳이 레포트 때문이 아니더라도, 갔다 오면 여러분 인생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물론 둘레길에 갔다 온 학생들은 플러스 알파 점수 있습니다. 증거로 덕산장에 가서 지리산 약초 인증샷 첨부하세요.”

“지리산이 얼마나 좋길래 남명 선생은 12번이나 지리산에 올랐을까?” 지리산 둘레길과 천왕봉을 품은 산청. 지리산 종주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둘레길은 한 번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서둘러 스마트폰의 시외버스 예매 어플을 열어 둘레길로 가는 버스 시간표를 확인한다.

2. 윤리 당산목

마을 앞 당산나무가 그 커다란 줄기를 드리우며 돌레꾼들을 맞이한다. 이곳에는 거대한 당산 느티나무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곳 윤리 일대의 가장 큰 어른이 이 당산나무이기는 하나 굳이 족보를 원래 있던 할아버지 당산나무의 아들이나 손주뻘되는 당산 나무일 것이다.

사방으로 길게 온 몸을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 마치 어머니처럼 마을 전체를 아우르려는 듯이 보인다.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해오던 당산나무는 그 해의 농사의 풍흉을 알아보는 역할도 해주었다.

‘당산나무 잎점’이라 하여 당산나무 잎이 무성하게 피었는지 아니면 듬성듬성 피었는지, 잎이 위에서부터 피었는지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피었는지, 잎이 한꺼번에 피었는지 여러 번에 걸쳐 피었는지 같은 상태에 따라 점을 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당산나무 잎이 한꺼번에 피면 그 해 비가 알맞게 흠뻑 와서 일시에 모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풍년이 들고, 조금씩 여러 번 피면 비가 조금씩 와서 모내기를 여러 번 할 수 밖에 없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요 밑에 가면 용소라고 있는데 이전에 단성현(면)에서 날이 가물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100년 전부터 기우제를 지냈어...”

당산나무 앞에서 만난 어르신들께 마을에 관해 여쭙어보니, 대뜸 기우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 사투리가 심하셔서 잘 알아듣기는 힘들었으나, 저 아래쪽 계곡이 만나는 곳에 용소라 불렀던 물웅덩이가 있었고, 단성면 일대에 가뭄이 들 때 마다 그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지금은 그리 깊지 않지만, 과거에는 용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깊고 큰 물 웅덩이였다고 한다.

이제는 용소라 부를 수 있는 깊은 연못도, 성대한 기우제도 사라지고 없지만, 당산 느티나무는 오랜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사라진 모든 것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을 것이다. 당산나무 안에 감추어진 많은 이야기들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본다

3. 참나무 군락

구불구불 길게 이어지는 숲길을 걷고 있으면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힘들고 지루하다고 해서 발끝만 보고 걷는다면, 둘레길이 건네는 생명의 소리를 놓치지 마련이다. 천천히 걸으며 길이 속삭이는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산청에서도 손꼽히는 참나무 군락지이자, 서어나무, 은사시나무, 굴피나무 등 다양한 식생이 분포되어 있어 숲의 번이를 생생하게 확인할 있는 천혜의 숲길이다.

참나무는 '진짜 나무'라는 이름답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이지만, 사실 참나무라는 이름을 식물도감에서 찾아볼 수는 없다. 대신 떡갈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등의 다양한 이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 나무들이 모두 참나무라고 통칭되는 것이다. 또한 참나무에서는 모두 도토리가 열리기 때문에 도토리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결국 참나무에 속하는 모든 나무들은 공통적으로 도토리를 열매로 맺지만, 그 잎의 모양새와 쓰임새, 그리고 자라는 곳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참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는 예로부터 목을 만들어 먹어왔고, 한때는 구황식물, 즉 흉년에 곡식 대신 먹는 열매로 옛사람들의 배고픔을 덜어 주기도 했지만 요즈음은 별미 건강식으로 많이 찾는다

특히 도토리는 사람들보다, 야생동물들에게 더 중요한 식량이 되는데, 다람쥐, 청설모, 너구리, 멧돼지 등 잡식이나 초식성 동물들은 거의 모두 참나무에서 나는 도토리를 즐겨 먹는다. 따라서 참나무가 울창하다는 것은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건강한 숲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우거진 참나무 숲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다. 예로부터 소나무 숲을 더 선호하여 참나무를 잡목으로 취급해 베어 버렸기 때문이다. 참나무는 숲을 이루는 대신, 숲으로 활용되거나 땀감으로 쓰여 왔고, 지금까지도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때 참나무 숯이 이용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둘레길에서 만난 '제대로 된 참나무숲' 이 더욱 반갑게 다가온다.

4. 멧돼지 베개목

산길을 걷다가 나무 밑동이 이상해 보이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한다. 표면이 반질반질한 게 무언가 커다란 물체가 오랜 시간 비빔 흔적이 선명하다. 밑동의 표면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두꺼운 동물의 털이 묻어있다. 멧돼지의 털이다.

표면이 반질반질한 이 나무의 정체는 바로 멧돼지의 베개목이다. 멧돼지는 진흙 목욕 후 부근의 적당한 나무에 자신의 몸을 비빔으로써 기생충을 털거나 가려움을 해소하는데 이를 베개목이라 한다. 동시에 자신의 체취를 나무에 묻혀 자신의 영역을 알리기도 한다. 이 부근을 살펴보면 멧돼지의 진흙 목욕터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잠시 쉬면서 멧돼지의 발자국과 목욕터를 찾아본다. 멧돼지의 발자국은 대부분 며느리발굽이라 부르는, 발굽 뒤의 작은 발굽이 함께 찍히는 모양을 갖고 있다. 주로 도토리나 나무 뿌리를 먹고 사는 멧돼지이기에, 참나무 숲이 울창한 이곳을 자주 찾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멧돼지는 자신이나 새끼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거의 덤비지 않는다.

이 근처 어르신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민가에 내려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다는 멧돼지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된다. 이 때문에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작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떠들썩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포획만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자칫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 건강한 숲과 다양한 생태계를 지켜준다면 야생동물들이 민가에 내려오는 일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게 된다.

5. 오솔길

호젓한 산길을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 동행이 있어도 오고 가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게 마련이다. 어쩌면 이런 숲길은 혼자 걷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외줄기 머나먼 길을 꼬불꼬불 돌고 돌아 하염없이 가는 호젓한 숲길. 이러한 길을 흔히 ‘오솔길’이라고 부른다.

둘레길엔 이 같은 ‘오솔길’이 많다. 그 옛날 어떤 이름 모를 나그네가 걸었을 법한 ‘오솔길’. 아마도 나그네에게 이 길은 외롭고도 고달픈 길이 아니었을까. ‘오솔길’은 ‘외솔길’이 변형된 말인데, ‘외솔길’의 ‘외’는 ‘외아들’이나 ‘외기러기’에서처럼 ‘혼자’, 혹은 ‘외롭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이기에 더욱 충만한 행복감에 젖을 수 있는 길 또한 이 같은 오솔길이다.

물론 ‘오솔길’이 외로운 길만은 아니다. 이는 ‘오솔길’에 관한 다양한 해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살펴보면 무척이나 흥미롭다.

먼저 ‘오솔길’을 ‘오소리가 다니는 좁은 길’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사실 숲길은 야생 동물들이 먼저 길을 만들면서, 그 길을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개화기 신여성과 모던 보이들이 오붓한 밀회를 즐겼던 장소로 ‘오붓한 솔길’이라는 뜻에서 ‘오솔길’로 부르기도 한다. 그밖에 소나무의 우리 고대어인 ‘아스’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하고, 좁은 골짜기나 시골의 골목길을 뜻하는 ‘고샅길’이 변형되어 ‘오솔길’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렇듯 ‘오솔길’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는 건, 그만큼 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같은 길이지만, 걷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산청의 ‘오솔길’과 ‘지리산 둘레길’은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

6. 백운동 계곡

긴 숲길을 걷다가 별안간 만나게 되는 백운동 계곡의 절경에 무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푸르른 신록을 배경으로 길게 이어진 깊은 골과 응석봉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 그 물들이 모여 자연이 빚은 기암괴석들 사이를 흐르며 크고 작은 폭포를 만든다.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남명 조식 선생이 지리산의 절경으로 손꼽았던 백운동 계곡.

지금 걷고 있는 윤리-덕산 구간의 백미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백운동 계곡의 절경에 반해, 둘레길을 벗어나 백운마을로 향한다. 계곡에서 마을까지는 약 2km 정도 떨어져있다. 둘레길의 숲길도 좋지만, 계곡에서 마을로 향하는 길 또한 백운동 계곡을 끼고 걷는 길이기에 그 자체로 아름답다.

백운동 계곡의 용문폭포 근처엔 남명 선생을 따르던 이 지역 선비들이 직접 바위에 새긴 글이 있었다고 한다. 백운동 계곡에 남아있는 남명 선생의 유일한 흔적이라고 하는데, 여간해선 찾기가 쉽지 않다. 들은 바로는 남명 선생의 후손 중 한 분이 이 흔적을 알리기 위해 여러 차례 바위 앞에 안내판을 세웠으나, 번번이 행락객들이 그 안내판을 뽑아버렸다고 한다.

이 마을 토박이 민박집 아주머니께 물어 물어 글씨가 새겨진 바위를 겨우 찾게 되었다

“남명선생 장구지소(南冥先生 杖履之所)”

즉 남명 선생이 다녀간 곳이라는 뜻이다. 어렵게 찾은 남명 선생의 흔적이 반갑지만, 기쁨보다 안타까움이 먼저 다가오는 건 왜일까?

그 안타까움에 몇 번이고 바위를 쓰다듬어 본다.

7. 마근담

마근담 임도를 따라 걷는다. 둘레길은 이곳 마근담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길로 바뀌는데, 마근담에서 사리까지의 길이 시멘트로 덮여있는 임도인 반면, 마근담에서 백운계곡으로 이어지는 길은 폭신한 숲길이다. 아무래도 시멘트 길보다는 흙길이 더 포근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두 가지 길 모두 저마다의 멋과 정취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둘레길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중 하나가 아닐까?

마근담. 그 이름이 참 소박하고 귀엽다. 마근담은 ‘막힌 담’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마을 앞 골짜기의 끝자락에 있는 감투봉이 마을을 담처럼 막고 서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와 비슷한 지명을 산청리 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을 옛날에 ‘마근대미’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지역 옆으로 흐르는 경호강이 자주 범람해 이를 막기 위해 담을 쌓았는데, ‘막은 담’이라는 의미의 ‘마근대미’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 ‘마근담’과 ‘마근대미’, ‘막힌 담’과 ‘막은 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마을의 이름이 흥미롭다.

마근담은 예전에 안마근담과 바깥 마근담으로 나뉘어, 골짜기 주변에 넓게 자리 잡은 소박한 산촌 마을이었다. 계곡이 깊은 곳이지만, 마근담에 들어서면 별이 잘 드는 넓은 공간이 나와 조용히 살기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60년대 초 무장공비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곳 마근담 사람들은 강제로 사리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고, 결국 마근담에 있던 마을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담 안에 웅기종기 자리 잡았던 옛 마을들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마근담 계곡의 맑은 물에 그 아쉬움을 씻어본다.

8. 사리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마근담에서 덕천강으로 이어지는 돌레길 주변이 모두 사리(絲里)에 속한다. 주변의 골짜기가 마치 실처럼 길고 가늘다 해서 “실골, 시릿골, 사동”이라고 하다가, 뜻을 그대로 한자로 옮기면서 사리(絲里)라는 이름이 되었다. 풍수설에 의하면 노잠토사, 즉 높은 누에가 실을 뽑는 형국이라 하여 실골이라 하기도 한다.

사리에 관한 풍수적인 해석을 자세히 들여보면 꽤 흥미로운데, 천왕봉에서 흘러내려오는 산세가 누에의 형국이고, 사리 마을에서 그 누에가 실을 뽑어내어 그 실이 덕천강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실은 덕천강 너머의 옥녀봉으로 가고, 옥녀가 그 실을 받아 비단을 짜는데, 그 비단결이 다시 사리 마을 앞으로 흘러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리 마을은 풍수적으로 명당 중에 명당으로 꼽는다.

또한 옛날엔 이곳 사리 지역을 사륜동(絲綸洞)으로도 불렀다. 사륜(絲綸)이란 당시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로 고려 인종때의 기인 한유한 선생과 관련된 일화가 전해온다.

처음에는 벼슬살이를 하였으나 이자겸의 횡포가 심해져 가족들을 데리고 악양으로 들어와 지리산을 노니는 신선이 되었다는 한유한 선생.

시대를 거슬러 잠시 그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외척들이 왕위를 좌지우지하고 무신과 간신배들이 판치는 중앙 정치에서 내가 할 일은 없다. 이곳 지리산 아래 숨어 세속의 연을 끊는 것만이 나의 절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뿐.”

당시의 혼탁한 정치현실에 대해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느낀 한유한 선생은 이곳 사리 지역으로 내려와 은거하지만, 곧 조정에서 보낸 사신이 찾아와 그를 데려가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방문을 굳게 닫고 이를 거부한다.

사자 : 임금께서 보내신 사륜을 가지고 왔습니다. 개경으로 들어오시라는 어명입니다.

한유한 : 저는 왕명을 받아들일 처지가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사자 : 그래도 저는 어명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예의에 어긋나지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들어 가겠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사신은 방으로 들어갔으나, 한유한 선생은 이미 창문을 통해 사라진 후였다. 방 안엔 그가 남긴 ‘7언 절구’만이 덩그러니 벽에 걸려 있었다.

일편사륜 내입동 (一片絲綸來入洞) 시지명자 낙인간 (始知名字落人間)

한 조각 임금 명령 골짜기로 들어오니, 내 이름 아직 인간 세상에 남아있는 줄 알았네.

어쩌면, 남명 조식 선생이 이곳 사리에서 말년을 보냈던 이유를 짐작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천왕봉이 보이는 천혜의 명당이자,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한유한 선생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땅. 이 곳에서 남명 선생은 천왕봉의 높은 기개와 함께 한유한 선생의 굽히지 않는 신념을 자신의 학문 속에 온전히 담고 계셨던 건 아니었을까?

9. 산천재, 구장터

길을 사이에 두고 남명 기념관과 산천재가 마주보고 있다. 사리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는 뒷산엔 남명 조식 선생의 묘가 있고, 덕산장터가 열리는 시천면 시가지를 지나면 남명의 제자들이 세웠던 덕천서원과 세심정이 있다. 천왕봉과 가까운 이곳 덕산 일대를 남명 조식 선생의 학문적 터전이라 칭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은 않을 듯하다.

남명 조식 선생은 퇴계 이황 선생과 더불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하지만 퇴계에 비해 후대에 덜 알려졌는데, 퇴계 이황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반면, 남명은 처사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처사란 벼슬을 관두고 초야에 운둔했던 선비를 뜻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재야 지식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천천히 산천재로 들어간다. 산천재(山天齋)는 남명 선생이 그의 나이 환갑에 이곳 덕산으로 들어와 손수 지은 집으로 생애의 마지막까지 학문에 정진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다.

본당 건물인 산천재와 그 옆의 사랑채, 그리고 선생의 문집 목판을 보관하고 있던 장판각, 산천재는 남명 선생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 규모가 소박해 보인다.

산천재의 왼쪽 창에는 공경할 경(敬)자를 오른쪽 창에는 옳을 의(義)자를 써 붙이고 교육의 지표로 삼았다. 심지어 자신의 차고 다니던 칼에도 ‘경과 의’의 의미를 가진 문구를 새겨 넣고 ‘내면을 수양하고 실천을 중요시하는 삶’을 강조했다.

그런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임진왜란시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왜군에 대항했다고 한다.

산천재의 네 기둥에 쓰여있는 시구엔 이렇듯 선생의 처사로서의 삶이 잘 묻어난다.

덕산에서 살며 (德山卜居)

봄산 어딘들 향기로운 풀 없으랴만 (春山底處無芳草)

하늘 가까운 천왕봉 다만 좋아서 (只愛天王近帝居)

빈손으로 왔으니 무얼 먹고 (白手歸來何物食)

은하십리 맑은 물 먹고도 남으리 (銀河十里喫猶餘)

그의 소박했던 정신을 기리듯 평소 좋아했던 매화 한 그루가 여태껏 마당에 남아 세월을 탐닉하고 있다. 이 매화는 남명매로 일컬어지고, 산청 3매로 인기가 자자하다.

산천재를 나와 다시 길을 걷는다. 이곳은 예전에 덕산의 장터가 열렸던 곳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일대를 구장터라고 부른다. 지금은 남명의 유적지만이 남아있는 한적한 시골

길이지만, 장터가 있던 시절엔 각종 상점들과 좌판, 그리고 마을들로 가득했을 것이다.

산천재와 옛 장터, 서로 다른 듯 닮아있다. 탁상공론에 치우쳤던 당시의 학문을 비판하며 현실에서의 실천을 강조했던 남명의 사상과 사람 냄새 가득한 옛 장터는 썩 잘 어울린다. 남명의 사상이 조선 후기의 유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10. 옛 파출소 자리

남명 선생의 유적지 옆 도로가에 검은 비석 두 개가 서있다. 커다란 이정표가 이 비석의 정체를 말해준다. 반공유적 전적비. 깔끔하게 단장된 전적비 뒤로 오래된 전적비가 하나 더 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오래된 전적비는 1961년에 덕천강에 세워진 것이고, 새로운 전적비는 2011년에 세워졌다. 비석 위로 전쟁에 참여했던 특공대원들의 명단이 빼곡히 새겨져있다.

전적비가 세워진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에 시천 지서, 즉 파출소가 있던 자리이다. 여순사건이 있던 1948년부터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이 체포되던 1963년까지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오죽하면 산청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3년이 아니라 16년이라고 이야기할까. 전적비에 새겨진 국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함께 총부리를 겨누던 빨치산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있던 수많은 마을의 주민들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 이유도 모른 채 죽어야만 했다. 특히 1951년 여름, 이곳 파출소 자리는 국군과 빨치산이 치열하게 교전을 벌이던 곳이었는데, 아마 당시의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 당시에 말로 한다면, 말 할 수가 없지. 나는 끝까지 싸웠지. 3일 낮 3일 밤까지 싸웠다고, 여기서.”

특공대원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마을 어르신은 당시를 떠올리며 아직까지 몸서리를 치신다. 시간은 흘렀지만, 역사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못하고 온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 언제쯤이면 이 아픔이 치유될 수 있을까?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보면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했던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구례와 남원, 산청과 함양, 그리고 하동까지, 둘레길 어디를 가도 빨치산과 토벌대의 전투, 그리고 민간인들의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둘레길을 걷는다는 건, 지리산에 남아있는 현대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11. 덕산장

길가에 좌판을 펼쳐놓고 안방인 냥 앉아계신 시골 할머니들의 모습이 편안해 보인다. 지리산에서 난 각종 약초와 산나물, 채소 등을 늘어놓은 채 타지에서 온 손님들과 흥정을 하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진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그리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을 가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장이라는 공간은 살아 숨 쉬는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비록 우리의 현재는 대형 할인마트의 편리함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지만, 재래시장이 주는 정겨움과 사람냄새를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덕산장은 4일과 9일에 열리는 5일장이다. 지리산 특산물로 꼽히는 송이버섯, 취나물, 고사리, 산두릅, 당귀, 작약 등 산나물과 약초가 유명하다. 특히 인삼과 맞먹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 작약을 비롯하여 향이 좋은 당귀,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맛을 인정받은 덕산 꽃감 등이 이곳 덕산장에서 자랑하는 특산물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감 시장인 만큼 겨울에는 감 거래로 장사진을 이룬다

물론 특산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덕산장엔 여느 시골 장터처럼 없는 게 없다. 덕산장의 구석 구석을 구경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데, 특히 장터의 진풍경 중에 하나가 물건 값 깎는 풍경이다. 밀지는 장사란 호들갑에 들은 척 만 척 값을 깎는 말다툼. 그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대판 싸움이 벌어질 듯 불안하기도 하지만, 결국 밀진다면이라도 비닐봉지가 터질 듯 듬뿍 담아서 건네고 만다.

이렇듯 옥신각신 벌이는 실랑이와 그 밑으로 흐르는 훈훈한 인심, 이것이야말로 덕산장 최고의 특산물이다.